

원효의 화쟁 글쓰기

김원명(한국외대)

[한글 요약]

인문학의 위기 시대에 그 위기 극복의 방법은 살아있는 인문학을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인문학은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느끼고 생각 하는 데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우리에게 사무친 우리말을 쓰고 우리글을 쓰는 것이다. 영어 몰입교육은 인문학을 더욱 위기로 몰아갈 것이다. 뜻을 드러내고 뜻을 새롭게 하는 글을 쓰라는 이규보의 주의론(主意論)이나 신의론(新意論), 뜻을 전달하는 글을 쓰라는 홍석주의 달의론(達意論)은 당시 한문몰입교육시대의 과거시험 문체 글쓰기나 모방적 글쓰기 또 실용성 현실성이 없는 무실(無實)한 글쓰기에 대한 반성이다.

사람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글쓰기로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어울려야 한다. 위대한 철학자들이 저술뿐만 아니라 대화, 편지, 기도문, 시, 이야기 등을 통해 그들의 철학함을 보여주었듯이 다양한 글쓰기를 장려해야 한다.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다양한 글쓰기 모델들은 집중적 글쓰기, 늪의 글쓰기, 편집술 글쓰기, 사무침 글쓰기 등이다.

본 논문에서는 원효의 화쟁 글쓰기가 제시한다. 화(和)의 정신을 배다에서 그리고 불교 내적으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원효 시대의 정치·종교·사회전통 상황 모두가 화쟁을 창안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신라의 화백회의의 신성성과 만장일치제 등은 고조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으로 원효에게 있어 내재적이며 주체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화백회의에서는 모든 의견들이 다 마땅함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신성한 만장일치 의견을 도출해낸다. 이것은 원효가 열고 닫음을 자재하게 하며[開合自在]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은[不一不異] 화쟁 글쓰기를 하며 도출하는 것과 유사하다.

화쟁 글쓰기는 '회통(會通) 글쓰기'와 '화회(和會) 글쓰기'와 불가분리다. 회통과 화회는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판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 뜻을 이해하면 그 글들이 서로 통한다[會通]. 조화를 이루며 그 뜻을 이해한다[和會]. 우리는 '비판'만 하거나 '따지기'만 하는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설득당하는 걸 기본 나빠한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본디 모든 것이 '우리'로 어울려 있다"고 본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과 불, 물, 바람, 풀, 나무, 벌레, 동물 등이 본디부터 '우리'로 어울려 있다고 본다." 더불어 어울리기 좋아하는 이들이 따지고 비판하고 설득하는 게 잘 맞지 않는 건 당연하다.

현대의 다원주의 지구촌 사회에서 필요한 평화로운 이해와 공존의 시대에 적합한 조화와 이해와 소통의 한국적인 '다 살리는' 인문학적 지구촌 글쓰기는 '화쟁 글쓰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다·살림 글쓰기'는 원효의 '화쟁 글쓰기'를 현대적으로 설명하는 미래 글쓰

기 대안을 제시하는 오래된 새로운 용어다.

주제분야 : 한국철학, 한국불교철학, 불교철학, 글쓰기

주 제 어 : 인문학 위기, 주의론, 달의론, 화쟁 글쓰기, 다-살림 글쓰기

1.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인문학 위기를 미래의 더 많은 다양한 글쓰기로써 처방해 인문학 위기를 치유하고자 하는 연구 흐름 중 하나다. 논자는 오늘날 우리 글쓰기의 문제를 살펴보고 전통적 글쓰기를 찾아 오늘에 맞추어 보고 미래적 글쓰기의 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인문학 위기와 관련해 글쓰기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나 대안 찾기 흐름 중에서,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러나오지 않는 글쓰기가 인문학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면에 주목하여, 전통적인 데 바탕하면서도 우리 글쓰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으로 쓰려고 한다. 특히 논자는 원효의 글쓰기 특징인 화쟁을 중심으로 그 대안을 모색해 찾아, 오늘에 맞추어 우리의 고유하면서도 보편적인 한 미래 글쓰기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의 전개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글쓰기 반성을 다룰 것이다. 글쓰기 반성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통적인 글쓰기 반성을 살펴보며 새로운 글쓰기 방향을 모색해 보고, 현대의 서양적 글쓰기 반성과 미래 글쓰기를 다룰 것이다. 둘째, 화쟁 글쓰기를 다룰 것이다. 화쟁 글쓰기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선 화쟁의 기원을 고대의 대감굿과 신라 화백회의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기원을 추측해보고, 다음으로 원효의 화쟁 글쓰기를 다룰 것이다. 그런 다음 화쟁 글쓰기를 토대로 한 미래 글쓰기의 새로운 전형으로 ‘다·살림 글쓰기’를 제안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며 나가는 말을 쓸 것이다.

2. 글쓰기 반성

1) 전통적 글쓰기 반성과 새로운 글쓰기 방향

동양의 인문적 전통에서는 옛 것을 토대로 하여 새 것을 만들어 내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태도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글쓰기에서도 이러한 인문주의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는 글쓰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그 비판들은 과거시험 문체 비판과 모방적 글쓰기 비판, 무실(無實)한 글쓰기 비판 세 가지로 요약된다.

현재 우리는 옛 우리 것이나 옛 서구의 것을 토대로 해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20세기 이전 조선 및 고려 그리고 그 이전 신라 말기의 글쓰기 대부분은 한문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지식인들은 당시 한자문명권의 보

편적 글쓰기 전형이었던 한문 고전 명문들을 모방하며 당송이나 진한 한문 모방 글쓰기를 주로 했다.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국가경영을 위한 지식인을 선발하는 수단이었던 과거시험은 그 준비를 위한 몰입 학습을 낳았다. 그로 인해 사대부들은 과거시험 문체에 익히고 과거시험 문체를 많이 쓰게 됐다.

신라말기, 고려를 거쳐 조선에서 한문 글쓰기는 나름의 독자적 성과를 이루었고, 동아시아의 보편적 글쓰기로 받아들여졌다. 우리의 한문 글쓰기 흐름은 전체적으로 실용적 글쓰기에서 문학적 글쓰기로 그리고 다시 실용적인 것과 문학적인 것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한문 글쓰기는 고려 후기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조선 전기에 한시 짓기가 사대부 문인들의 중요한 교양이 되었다. 그러나 과거시험 문체의 형식적이고 몰개성적인 글쓰기가 성행하였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고려 후기 이규보는 주의론(主意論) 또는 신의론(新意論)을 제기하였다. 조선 후기에도 달의론(達意論)이 제기되었다. 고려 후기와 조선 후기에 이런 글쓰기 비판이 제기된 것은 과거시험 때문이다. 과거시험은 조선시대 사대부들끼리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중요한 기준¹⁾이어서, 대부분의 사대부는 초집이라는 예상문제집에 의존하여 과거시험 예상문제를 달달 외우며 시험 준비를 했다. 그마저도 수준미달 응시자까지 합격시키면서 과거공부의 목표 수준을 낮추어 저학력자 사대부들도 많았다.²⁾ 그렇게 익힌 글은 형식적이고 몰개성적인 글쓰기를 낳았다. 오늘날의 대입 논술시험도 평가의 수월성을 위해 모범 답안이 있는 일정한 형식을 가진 글쓰기 시험이 된다면 같은 문제를 낼 것이다.

16-17세기에 이르러야 조선 산문에 독자적 비평이 나타난다. 명조 문단의 자극을 받아 조선에서도 글쓰기의 본질적인 면에서부터 방법적인 면까지 진지한 논의가 시작됐다. 비평과 창작에서도 우리 정서와 현실에 맞는 방식들이 실험되기에 이르렀다. 최립(1539-1612)은 과거시험 문체의 사장(詞章)주의에서 도본문말론(道本文末論)을 주장했다. 도(道)와 문(文)을 결합시켜 과거지문(科擧之文)을 버리고 문장지문(文章之文)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방법으로 『서경』으로부터 『장자』 『이소』에 이르는 옛글을 두루 배우고 익혀, 정해진 격식으로 평범한 표현을 답습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맞게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는 은유와 비유를 쓰며 기존 틀에서 벗어나는 기궤(奇詭)한 표현을 추구하며, 작가의 의식이 단절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속적으로 진실하게 수양하고

1) 이원재, 「제1부 과거시험을 봐야 했던 진짜 이유들」, 『과거공부를 알아야 우리 교육이 보인다』, 문음사, 2005 3쇄, pp. 15-38 참조.

2) 같은 책, pp. 101-104 참조.

성찰할 것을 강조했다. 유몽인 이수광 같은 이들이 최립과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³⁾

18-19세기에는 조선 문단의 한문 글쓰기가 국제적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지대한 역할을 한 것이 고문론(古文論)이었다. 당시 명대의 복고주의 문학에 촉발되어 발전된 고문론은 고문 학습에 대한 텍스트와 창작 방법상의 문제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글쓰기 이론을 모색해 갔다.⁴⁾ 조선 후기 달의론은 고려 말 이규보의 신의론과 달리 의고 문풍(擬古文風)[옛 글을 모방하는 글]과 도학문풍(道學文風)의 글쓰기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포함되어 있다. 대체로 이 주장은 ‘생각[意]’를 중시하는 당송고문 계열의 문인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홍석주는 “글은 생각을 전달하는 것[達意]을 위주로 하고, 생각[意]은 이치에 합당한 것이 중요하다”⁵⁾고 하였다.

달의론은 글쓴이의 의도가 잘 전달되어야 하고 이치에 맞아야 한다. 특히 작가의 내적 완성을 중시한다. 홍석주(洪奭周)는 “즉심위문(即心爲文)”⁶⁾이라 했다. ‘마음’이란 학문과 실천을 통해 참된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형성되는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으로,⁷⁾ 이것이 마음 안에서 혼용일체가 되어 “그것을 얻으면 덕(德)이 되고, 그것을 행하면 도(道)가 되며, 남에게 고하면 말이오, 여러 책(策)⁸⁾에 쓰면 글이니, 이 네 가지는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를 뿐, 실상은 하나일 뿐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마음 안에 훌륭한 의식이 가득 차 있으면, 절로 주제가 떠오르고 굳이 논리를 다듬지 않아도 평순하게 문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⁹⁾

홍길주(洪吉周)나 홍석주는 모든 도구들이 외형이 화려해지면 실용성이 떨어지듯이, 문학 역시 꾸미고 다듬는 형식성에 빠지면 실용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본다. 자신의 경험적 인식이나 사실에 의거해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내용으로 글을 써야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 쉽게 드러나고, 말과 글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진

3) 김철범,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이조후기 古文論을 대상으로-』, 『작문연구』 창간호, 2005 참조.

4) 김철범, 같은 논문, 머리말 참조.

5) 홍석주, 『학강산필』 권2, 41항 : “文以達意爲主, 意以當理爲貴.”

6) 홍석주, 『연천집』 권16, 答舍弟憲仲書.

7) 김철범, 『연천 홍석주의 고문론』, 『한국한문학회연구』 제12집, 한국한문학회연구회, 1989

8) 책문(策問) : 정치에 관한 계책을 물어서 답하게 하던 과거(科擧) 과목. ㄴ책(策)·책시(策試).

9) 김철범,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이조후기 古文論을 대상으로-』, p. 87, “조선후기 과거문체와 모방풍의 글쓰기가 문단에 만연하여 상투적인 답습과 모방에 급급하느라 소위 알갱이 없는 글쓰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기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을 가져다 짜깁기하기도 하고, 문장의 구성형식을 맞추느라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글이 되기도 하였다. 또 더러는 논리구성이 영성하거나 지루하게 늘어놓는 통에 말하려는 본지가 뒤엉키기도 하였다. 이런 글쓰기에 대한 비판과 반성에서 達意論이 제기되었다.” 참조.

실된 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¹⁰⁾

18-19세기에는 문학예술의 독창성 문제가 부각되었다. 또 ‘진(眞)’과 ‘실(實)’의 문제가 크게 주목되었다. 시에서는 ‘천기(天機)’ 논의와 함께 진정(眞情)한 시, 진실(眞實)한 시가 추구되었다. 산문에서도 진실한 글쓰기가 추구되었다. 이때 ‘진’은 표현면에서 진실성이고, ‘실’은 내용면에서 현실성을 의미한다. 당시 이하곤(李夏坤, 1677-1724) 조귀명(趙龜命, 1693-1737) 등은 김창협(金昌協)의 논리를 계승하여 발전시킨 고문작가 중 대표적인 이들이다. 특히 이들은 ‘진문(眞文)’의 글쓰기를 위한 요건으로 작가가 알고 본 것을 중시했다. 그것은 다양한 공부를 통해 보고 안 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뛰어난 언어 문자로 그려내는 것이다. 즉 보고 안 것이 글쓰기의 진실성과 현실성을 담보해준다는 것이다. 19세기 초 홍석주, 홍길주, 김매형(金邁亨), 유신환(兪莘煥, 1801~1859), 한장석(韓章錫, 1832~1894) 등 깨어있는 지식인들은 당시의 급박한 현실을 외면하고 공허한 말만을 늘어놓고 비현실적인 학문에 매몰된 지식인들을 비판한다. 그들은 허위와 가식으로 물든 그 시대와 그 시대의 글쓰기를 비판하며, 현실(現實)적인 내용을 진실(眞實)하게 표현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그 내용이 자신의 현실 삶으로부터 배어나오는 참 글쓰기가 곧 그 표현에 있어 서로의 마음을 진실하게 울려주는 것이 된다. 그는 참 글쓰기를 하라고 강조한다.¹¹⁾

과거시험 문체 글쓰기와 모방적 글쓰기, 그리고 무실(無實)한 글쓰기와 같은 당시 글쓰기 비판에 대한 전통은 오늘날 글쓰기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나 오늘날 그 교훈은 망각되었다. 점차 정형화되어 가는 대입논술 시험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정형화된 과거시험으로 인한 과거문체 글쓰기에 올인 해서 생긴 문제와 똑 같은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대입논술이 핵심 요약과 비교분석 그리고 논리와 비판의 형식을 강조하면서 쓰기가 아닌 읽기가 강조되고 있다. 또 대학 글쓰기 교육은 형식적인 데 그치고 있다. 또 논리적·비판적 사유를 강조하는, 서구의 합리성에 바탕한 논문 글쓰기는 우리 시대의 모방적 글쓰기가 될 위험이 있다. 자신의 삶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성을 결여한 채, 논리와 비판을 강조하는 합리적이며 형식적인 글쓰기는 현대의 모방적 글쓰기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전통적 글쓰기 반성을 통해 우리의 새로운 글쓰기 미래에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제안한다. 첫째, 서구적인 것이든 동양적인 것이든 모방적 글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 둘째, 대입 논술 또는 대학의 학·석·박사 학위논문의 글쓰기만이 하

10) 김철범, 같은 논문, p. 78.

11) 김철범, 같은 논문, pp. 79-80 참조; 김철범, 『19세기 산문론에서 ‘實’의 문제』 『한국한문학연구』 35집, 한국한문학회, 2005 참조.

나의 이상적인 전형으로 여기는 논문중심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¹²⁾ 셋째, 서로 알아듣는 진실한 글쓰기를 해야 한다.

2) 서양적 글쓰기 반성과 미래 글쓰기

현대 인문학의 문제는 일제 식민 시대에 간접수입학문, 또 해방을 맞으며 유럽과 미국 등에 유학해 배워온 직접수입학문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서구적 개념에서 인문학은 17세기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근대 서구 학문을 한꺼번에 수입하면서 인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인문학 개념이 다르다. 20세기 초 식민경험 그리고 20세기 중반 해방과 분단에 이은 한국전쟁 경험, 경제개발과 군사독재 경험이 우리 인문학 그리고 글쓰기와 상관관계를 갖는다.

20세기 초 중반 우리 시대의 화두는 그야말로 ‘살아남기’와 ‘먹고 살기’다. 이 어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향한 경제성장을 외치며 서구 산업자본주의화가 70-80년대의 시대적 과제였다. 21세기를 맞은 지금은 후기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맞고 있다. 20세기 우리는 옷에서부터 잠자고 생활하는 집 그리고 먹는 것까지 서구화되었다. 우리 문화전통의 단절이 전 영역에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이미 너무나 서양적이다. 우리 현실처럼 우리가 배우는 대다수의 수입학문은 서구 근대의 인문학 혹은 인문과학인 ‘경험과학’을 한 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인문학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 여전히 대부분 ‘사람됨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으로 규정된다.

최근 10년 특히 우리 학계는 인문학 위기와 관련하여 서양적 글쓰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다. 김영민은 인문학 위기가 ‘식민성과 공모한 삶’, ‘삶의 소외’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¹³⁾ 인문학자들의 글쓰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삶과 현실로부터 비롯한 것이 아니라, 식민성과 공모한 삶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김영민과 비슷한 진단을 하는 김진나와 박주식은 인문학의 구조적 조건과 시대상황이 인문학이 원래 표방했던 인간다움의 실현이라는 이상론과는 정반대로 이미 식민주의적인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인문학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본다.¹⁴⁾ 정덕현의 인문학위기론에 대해 요약하면, 논리실증주의와 자생적 지배 담론 부재¹⁵⁾

12) 김영민, 『자색이 붉은 색을 빼앗다』, 동녘, 2001, p. 273 참조.

13) 김영민, 『진리·일리·무리-인식에서 성숙으로』, 철학과 현실사, 1998, pp. 29-32 참조;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7 참조.

14) 김진나·박주식, 『인문학의 위기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틀’ 모색』, 『비평과 이론』 제4권 1호, 1999, pp. 159-173 참조.

15) 정덕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글쓰기』, 『사회비평』 제34권, 2002, pp. 41-42 참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해림은 인문학위기의 원인을 일곱 가지로 든다. 이를 살펴 보면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저절로 드러날 수 있다. 첫째, 역사적으로 보면 인문학이 보수적인 이론에 치우쳐 일부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구실을 일삼았다. 둘째, 인문학이 알게 모르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 셋째, 삶과 유리된 인문학 연구를 해왔다. 넷째, 대중들과 폭넓은 공유를 하지 못했다. 다섯째, 고립된 학문으로 치우쳐 왔다. 여섯째, 실용성이 떨어져 실용학문에 밀려왔다. 일곱째,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대학정책의 지속적인 혼란이 있었다.¹⁶⁾ 이상을 종합하면, 밖으로부터 수입되고 우리에게 아직 설익은 인문학 내용들과 그 내용들로 쓴 글이 외면당하고 결과적으로 인문학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 삶으로부터 비롯한 자생적 인문학 글쓰기와 이론을 전개하면 된다.

그러나 오히려 인문학 개념을 우리 인문학자들이 잘못 잡은 데 그 위기가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최중옥은 서양 인문학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인문학위기를 초래했다고 본다. 그리스적 의미의 구도적 학문과 근대적인 의미의 경험과학으로서의 학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리스적 의미의 구도적 학문으로 인문학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⁷⁾ 또 홍성옥은 서양에서 17세기 이후 인문학은 도덕적 수양과 별개로 여겼는데, 우리는 여전히 인문학을 도덕적 수양과 별개로 여지지 않는다고 한다. 우리가 인문학을 제대로 가르치거나 연구하지 못하고 서양의 학문에 각주를 다는 식, 예를 들어 일부 학자가 외국 책과 논문에서 이것저것 따와서 연구를 하거나 자기 글의 권위를 높이려 인용하는 글쓰기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또 실체가 모호한 우리 것에 대한 집착, 정서에 호소하거나 선문답 같은 담론이 인문학 위기를 심화할 뿐이라고 한다. 인문학 훈련은 치밀하게 분석하고 컨텍스트적인 사유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는 ‘우리 글쓰기’의 대안 가능성을 부정한다.¹⁸⁾

최중옥이나 홍성옥의 입장에서든 일부 인문학자들의 학문적 글쓰기는 소화되지 않은 이론 소개나 주석적 글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컨텍스트적인 사유를 해야 된다고 비판한다.

이왕주는 위대한 철학자들이 정형화된 문체로 글을 쓰지 않은 것을 상기한다. 오늘날 전해지는 그들의 대화, 편지, 기도문, 수학적 증명법, 시적 표현 등이 모

16) 양해림, 『인문학의 패러다임과 인문학 위기의 극복책을 위하여-딜타이와 신칸트학과, 베버,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001, p. 35 참조.

17) 최중옥, 『인문학의 위기-인문과학의 위기에 대한 담론분석을 위한 시론』, 『어문학논총』 제 18집, 국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pp. 412-414 참조.

18) 홍성옥, 『인문학적 사유의 창조성과 실용성: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한 가지 제안』, 『동향과 전망』 통권44호, 2000, pp. 217-218 참조.

두 글쓰기의 전형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선생은 감성적인 일상어가 있는 학생의 발표문·보고서·논문에 빨간 줄을 죽죽 그어댄다. 그는 서정적인 문체든 소설적인 표현기법이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허용해 독과점적인 표현의 제한 조항들을 활짝 풀어 모든 표현법이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¹⁹⁾ 글쓰는 이는 자신 안에 머물러 묵어 익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가능한 모든 표현법들을 동원하며 글쓰는 자유를 얻어야 한다.

전성기는 소통장애의 해체를 위해 임상수사학적 글쓰기를 주장한다.²⁰⁾ 수사학자가 오해나 갈등, 비난, 비방 등의 의사소통상의 각종 부조화 및 그 원인을 진단하고 처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김용환, 김영진은 임상철학이 잘못된 인식구조나 가치관, 그리고 비논리적 사고방식 등의 철학적 병을 진단하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방할 수 있다고 한다.²¹⁾ 이와 같이 임상철학을 통해 철학적 병 치료 글쓰기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장석주는 잡된 글쓰기나 잡종적 글쓰기를 말한다.²²⁾ 글쓰기는 지금-여기의 현실에서 반향된 잡종적 글쓰기여야 한다는 것이다. 잡종적 글쓰기는 다양성·복잡성·현장성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다고 한다. 최재목은 늪의 글쓰기를 말한다.²³⁾ 늪의 글쓰기는 삶 속에서 모든 잡된 것들이 함께 녹아 있는 것을 쓰는 것이다. 이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보며 수행하는 수행적 글쓰기이며, 관계적이며 연기적인 자신을 돌아보는 연기적 글쓰기다. 이런 수행적이며 연기적 글쓰기는 동시에 자신을 치유하고 또 남을 치유하는 치유적 글쓰기다. 그는 또 편집술 글쓰기도 말한다.²⁴⁾ 그는 글쓰는 것은 도처에 널려 있는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황(李滉, 1501-1570)의 『성학십도(聖學十圖)』가 바로 당시까지 전해오는 저작내용을 창의적 발상으로 열 가지로 편집해 꿰는 것이라 한다. 안장리는 문학적 글쓰기와 학문적 글쓰기를 넘어 작품과 논문의 통합적 글쓰기를 말한다.²⁵⁾ 최환기

19) 이왕주,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 『철학과 현실』 제28권, 1996, p. 107 참조.

20) 전성기, 「학문적 글쓰기-임상수사학적 탐구」, 『텍스트언어학』 20, 2006 참조.

21) 김용환, 「임상철학을 위한 시론」(『한국인을 위한 논리』, 김영진, 철학과 현실사, 2001 서평), 『철학과 현실』 제50권, 2001 참조; 김영진, 「철학적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임상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참조.

22) 장석주, 「논문이나, 주제적 글쓰기나」, 『사회비평』 제34권, 2002, p. 57 참조.

23) 최재목, 「코스모버 인문학-젊은 철학자의 늪의 글쓰기」, 장승, 2003, pp. 13-18 참조.

24) 최재목, 「인문학, 편집술, 事的 글쓰기 혹은 緣起的 글쓰기」, 『인문연구』 제45·46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pp. 280-283 참조.

25) 안장리, 「인문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 장르변형 글쓰기-정인보의 唐陸軍遺事徵」, 『동방학지』 130, 2005, p. 281 참조.

(崔漢綺, 1803-1877)는 철학글쓰기와 문학글쓰기 통합을 고민했고, 정인보(鄭寅普, 1893-?)는 중세의 통합적 글쓰기와 근대의 개별적 글쓰기를 아울러 수행하며 역사글쓰기와 문학글쓰기를 고민했다고 평가한다.

구연상은 사무침 글쓰기를 말한다.²⁶⁾ 글쓰기는 글쓰는 이 각자의 속에 담긴 뜻을 글 읽는 이에게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글쓰기 전에 스스로 묻고 생각하고 기다리며 사무쳐 우리나라와 글이 되는 것이 사무침 글이라 한다. 그렇게 사무침 글을 읽는 읽으미가 글을 쓴 글쓰미와 함께 사무치게 읽음으로써 그 뜻을 잘 전달하고 전달받아 서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서로 통하면서 신명나게 더불어 살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맞는 우리의 미래 글쓰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상수사학을 말하는 전성기는 화쟁(和靜)이 현대적 학문적 글쓰기의 한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는 최귀목, 오강남 그리고 이도흠이 화쟁에 주목하는 것²⁷⁾을 소개하고 있지만, 현대 학문적 글쓰기의 지향과 관련한 화쟁에 대한 그 자신의 연구 내용은 없다. 그러면서도 페르노를 인용하며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독특한 경험들의 다양성과 특정한 연구 분야의 다양성과 공유하는 계획의 일관성을 결합’²⁸⁾시키려는 시도가 학문적 글쓰기에서도 진정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는 ‘화쟁’의 학문적 글쓰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²⁹⁾

지금까지 주로 서양적 글쓰기에 대한 최근 10년의 비판적 입장과 대안들을 살펴해보았다. 서구의 근대 경험과학에 바탕한 서양 인문과학도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관한, 사람을 위한, 사람이 한, 사람의 학문인 한 근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서구 근대의 합리성 추구 학문의 한 모델인 논문 글쓰기 방법은 서구적 근대를 대표하는 좋은 한 글쓰기 유형이다. 그렇지만 역사와 문화와 말이 다른 학문적 전통 속에서 길어져 나온, 세계 각각의 문명권 학자들에게는 그것이 익히고 숙고할 대상이면서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인문학 위기를 극복하는 인문학적 처방은 결국 인문학의 목표인 사람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목표를 충족하는 것이 다양한 글쓰기고, 다양한 글쓰기는 또 서로 소

26) 구연상, 「글쓰기의 목적과 사무침」, 『우리말 글쓰기와 학문』, 우리말로학문학기모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층 브릭스 센터, 2008년2월29일, pp. 95-104 참조.

27) 최귀목, 『김시습의 사상과 글쓰기』, 소명출판, 2001, pp. 199-200 참조; 오강남, 『원효사상과 현대사회학』, 『불교연구』 제3집, 1987, pp. 140-142 참조; 이도흠, 『화쟁기호학, 이론과 실제. 화쟁사상을 통한 형식주의와 마르크시즘의 종합』, 한양대학교 출판부, 1999, p. 108 참조.

28) 페르노, R., 「수사학의 시대」, 『수사학』 창간호, 2004, p. 33. ; 전성기, 같은 논문, p. 413 재인용.

29) 전성기, 「학문적 글쓰기-임상수사학적 탐구」, pp. 412-413 참조.

통되고 이해되고 어울려야 한다. 논자는 글쓰기 대안이 그 본래 목적에 부합하면서 우리 삶의 고민으로부터 우리나라의 것이면서도 보편적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전성기가 지적인 바 있는 화쟁 글쓰기다. 화쟁 글쓰기를 우리 미래 글쓰기의 이념과 방법으로 제안한다.

3. 화쟁 글쓰기

1) 화쟁의 기원 : 대감굿과 화백회의

우리 철학사에서 첫새벽의 한 사람인 원효(元曉, 617-686)의 글쓰기 방식을 ‘화쟁(和諍) 글쓰기’로 규정해본다. 원효 철학의 독특한 핵심 낱말이 화쟁이고, 그의 글이 많은 부분 실제로 화쟁적이기 때문이다. 화쟁사상의 유래를 불교 내적 기원과 전통적 기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불교는 모든 존재가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을 얻는 것[離苦得樂]을 목표로 한다. 화쟁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똑같이 불성을 가지고 있으며 깨달음을 얻어 행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실현하는 지혜다. 은정희는 원효의 화쟁 정신이 베다 사상[Vedism]에서 찾을 수 있고, 부처가 실천을 중시하는 데서 그 뿌리가 나타나 1200여년 불교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오다가 원효에 이르러 화쟁 정신으로 시대적 재현 내지 재창조된 것으로 본다.³⁰⁾ 김영호는 원효의 화쟁이 인도의 나가르주나(Nāgārjuna, 龍樹, 150?~250?)의 회쟁(廻諍)이나 중국의 무쟁(無諍) 전통과 다르다고 본다. 나가르주나의 회쟁(廻諍)은 공관에 입각한 철저한 부정적 사유방식으로서 쟁론을 바르게 뒤바뀌 제거하는 것이다.³¹⁾ 또 정영사(淨影寺) 혜원(慧遠, 523-592)은 중도(中道)를 공(空)과 같은 맥락에서 초월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며 쟁론의 소극적 지양이나 화회 또는 편집(偏執)의 해소 즉 집착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不執不諍] 차원에 머문다. 혜능(慧能, 638-713)이나 신회(神會, ?-760)는 무쟁의 측면이 갖게 나타난다. 화쟁은 언어가 도구가 되는 모든 쟁론을 여의자는 선(禪)의 침묵과는 다르다. 물론 돈(頓)·점(漸) 두 흐름의 합류점을 찾는 종밀(宗密, 780-841)이나 연수(延壽, 904-975) 등에 나타나는 조화와 절충의 사상 속에 비슷한 면이 없지는 않다. 원효도 돈·점

30) 은정희 역주, 『해제』,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2002 10쇄, pp. 11-12 참조.

31) 김영호, 『원효 화쟁 사상의 독특성-회쟁(인도) 및 무쟁(중국)과의 대조-』, 『철학』, 한국철학회, 2000, pp. 12-17, p. 33 참조.

의 개념이 화쟁 구도 속에서 빈번히 등장한다. 그리고 일원론적이고 통합적인 천태나 화엄 교리에도 비슷한 면이 많다. 그러나 원효는 회통(會通)을 말하지 회통(會統)을 말하지는 않는다. 또 중국불교는 결국 종파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원효의 화쟁은 모든 종파를 두루 포괄해 범종파적이다.³²⁾

불교사적으로 당시 동아시아는 인도에서 일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불교와 그에 따라 축적된 불교이론들이 한꺼번에 유입된다. 유입되는 시기와 종류에 따라 주로 의존하는 경전이 달라진다. 주로 의존하는 경전에 따라 여러 종파가 생기며 종파에 따라 불교 이론상의 차이 때문에 갈등하게 되고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문제된다. 그래서 원효는 불경에서 혹은 논서들에서 어긋나 보이는 글들이나 주장들이 어긋나지 않음을 보이고 모두 진리를 드러내는 바가 있음을 보인다.

당시는 신분제인 골품제의 모순을 겪고 있었고 골품제의 신분적 모순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³³⁾ 또 당·고구려·백제·신라간의 큰 전쟁을 겪었다. 고구려는 김인문(金仁問, 629-694)과 이세적(李世勣, 李勣, ?~669) 당군의 평양성 함락으로 멸망하고(668), 백제는 김유신(金庾信, 595-673)과 소정방(蘇定方, 592-667) 당군의 사비성 함락으로 멸망하고(660) 신라와 당군이 승리하게 된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전쟁 후에 신라 땅이 된 옛 백제 땅과 옛 고구려 땅의 유민들은 신라에게 두루 감싸 안아 해결해야 할 정치적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원효의 화쟁은 동아시아 불교의 시대적 요청이며, 한반도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서의 시대적 요청에 대한 보편적이며 고유한 응답이었다. 이제까지 학자들은 화쟁의 기원을 전통적 기원에서는 찾지 않았다. 그러나 논자는 신라의 화백회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화백회의는 원시부족연합국가가 성립하며 생긴 것이다. 그 기원은 단군조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까지 남아 있는 대감굿이 바로 화백회의의 원형적 모습을 보여준다. 대감굿은 신시시대 신시(神市)에서 벌인 의사결정형식을 보여주며, 대감굿을 만든 목적을 노중평은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첫째, 단군조선에서 신시를 열고 화백회의(和白會議)를 했을 때, 의사결정수단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둘째, 당시의 경제체제인 호혜경제의 운영방식을 각 부족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교육용으로 활용하였을 것이다. 대감굿은 호혜경제시대에 단군조선에서 신시

32) 김영호, 같은 논문, pp.21-33 참조.

33) 박태원, 『한국 고대불교의 통합사상-원효와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14집, pp.2-6 참조.

나 국중대회를 열고 시행해 분배의 원칙을 그대로 시연해 보인 것이다.³⁴⁾ 신시 아사달에서는 호혜경제시대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물물거래를 하였다. 단군 왕검은 당시의 천제(天祭)인 국중대회(國中大會)를 주관하면서, 대감굿을 하며 대회에 쓸 비용을 각 부족의 대표에게서 추렴하였다. 굿은 이미 신시가 발달했던 배달나라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시의 전통적인 의사결정방식이었다. 배달나라에서는 이를 화백(和白)이라고 하였다.³⁵⁾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은 모두 합좌제도(合坐制度)에 의해 정치가 행해졌다. 예를 들면 고구려에서는 수상인 대대로(大對盧)를 국왕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선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5관등인 조의두대형(阜衣頭大兄) 이상이 국가의 기밀사무를 맡아 국정의 중대사를 도모하였으며, 병사를 징발하여 관작(官爵)을 주기도 했다. 백제의 경우 수상인 상좌평(上佐平)을 투표로 선거했다는 이른바 정사암(政事巖)의 고사(故事)가 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고위 귀족들의 합좌제도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합좌제도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신라의 화백(和白)이다.

신라 화백회의는 원시부족연합국가가 성립하면서, 처음에는 경주 부근의 6촌(村) 사람들이 모여 이 6부의 단합과 결속을 위해 만든다. 원시부족국가인 사로국에서 왕권 국가인 신라로 되면서, 뒤에는 진골(眞骨) 이상의 귀족이나, 벼슬아치의 모임으로 변하여, 점차 일종의 군신(君臣) 합동회의, 귀족회의, 또는 백관(百官)회의의 성격을 띤다. 화백회의에서 왕위 계승이나 국왕의 폐위, 대외적인 선전포고, 그 밖에 불교 수용과 같은 국가의 중대한 일들이 결정되었다. 화백회의는 한 명의 반대자가 있어도 의안(議案)이 통과되지 않는, 전원일치로 성립되는 회의체제다.³⁶⁾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자 전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화백회의의 정신은 후일 고려시대의 도당회의(都堂會議)인 도병마사(都兵馬使:都評議使司)회의에서도 볼 수 있다.

재야문화인류학자인 김영래는 화백회의를 복원해 2004년 10월 15일부터 3일 동안 지리산 실상사에서 ‘2004 생명평화대회’에서 선보였다. 여기서 보인 화백회의 의사결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다. 즉 소수의 의견도 고스란히 반영한다.(고루함) 둘째, 주장들 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두루한다.(두루함) 셋째, 타협과 양보를 쉽게 해 어울린다.(어울림) 넷째, 발언

34) 「대감굿이 보여주는 호혜경제시대의 분배의 원칙」 DAUM 블로그뉴스 2006.01.11. 자 참조.

35) 「귀거리만신의 굿은 역시 대인의 굿」 DAUM 블로그뉴스 2006.01.31. 자 참조

36) 『수서(隋書)』 「신라전」, “其有大事, 則聚群臣, 詳議而定之.” 참조; 『당서(唐書)』 「신라전」, “事必與衆議, 號和白, 一人異則罷.” 참조.

이 독점되지 않는다. 진정한 평등이 실현된다.

화백회의의 진행절차에서 보이는 의사결정 과정의 독특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회의는 의견을 성숙시키는 과정과 결정하는 단계가 있다. 화백회의는 말발을 실어주거나 빼 내는 과정을 통해 토론이 이루어지고 의견이 성숙되는 과정을 거친다. 화백회의에서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말발의 상호상쇄로 하나의 의견으로 나아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화백회의를 하면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서는 일이 없다. 화백회의 원칙을 통해서도 감정 상하는 일이 없다. 화백회의는 의견을 내는 순간 ‘내 의견’이라는 소유관념이 없다. ‘나’와 ‘내 의견’을 고집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화백회의 장소도 신령스런 장소에서 이루어진다. 참석자들은 의견을 내면서 각자 자신도 없고 자신의 의견도 없다.

논자는 화백회의에서 보여지는 고루하고 두루하고 어울리는 화백정신의 전통을 몸소 겪었을 원효가 불교라는 외래종교를 내면화하며 소화하고 체득·체오하면서 불교경전을 주석하고 이해하는 틀로 화쟁을 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원효 화쟁 사상 유래의 한 축이 화백이라 생각한다.

2) 원효의 화쟁 글쓰기 : 다-살림 글쓰기

‘인문학의 목표가 사람의 삶을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면, ‘이런 목표를 충족하는 것이 다양한 글쓰기고, 다양한 글쓰기는 또 서로 소통되고 이해되고 어울려야 한다.’ 글쓰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면서 우리 전통으로부터 우리나라 것이며 보편적일 수 있는 글쓰기는 화쟁 글쓰기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논자는 원효의 화쟁(和靜)이 고대 및 신라의 화백(和白) 전통에 그 기원을 둔 것이란 추측적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물론 이에 대한 논증은 앞으로 더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화백의 만장일치는 그저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시키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의견들을 고루 내고 그 의견들을 두루 아우르는 신성한 합의다. 모든 의견들은 다 마땅함을 가지고 있다. 모든 의견들은 모순되어 보일지라도 그 모든 의견들은 다 신성한 큰 뜻에 맞게 나온 것들로서 허락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두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조화와 통일을 이끌어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화백의 만장일치다. 원효의 화쟁도 이와 다르지 않다. 화쟁은 바로 ‘불교의 모든 범문들이 다 이치가 있으며, 다 이치가 있으므로 모두 허락되지 않음이 없고, 허락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³⁷⁾는 지혜다. 또 “뭇 경전의 부분을 통합하여 온갖 흐름의 한 맛으로 돌아가

37) 원효 저, 은정희 역주, 『이장의』, 소명출판, 2004, 260-261 참조; 『이장의(二障義)』, 한불전1,

게 하고, 부처 뜻의 지극히 공변됨을 열어 다양한 학파의 다른 주장들을 어울리게 한다”³⁸⁾

원효의 화쟁이 주목을 받게 되는 최고(最古)의 현존 자료는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를 꼽을 수 있다.³⁹⁾ 이 비문은 『십문화쟁론』을 원효의 대표적인 저술로 기술하고, 화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으로 기술한다.⁴⁰⁾ 그 뒤 300여년이 지나 고려 시대에 와서 한 번 더 화쟁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원효 철학의 핵심으로 파악한다.⁴¹⁾ ‘서당화상비’ 이후 전통적으로 원효 사상의 핵심을 화쟁으로 보고 『십문화쟁론』을 그 특징적 저술로 본 이래 연구자들이 원효의 화쟁을 연구할 때, 『십문화쟁론』 잔간과 원효의 다른 저술 등을 통해 복원한 『십문화쟁론』을 다루었다. 그의 이와 같은 화쟁이 펼쳐지는 술어들이 『기신론해동소』 『대승기신론별기』 『금강삼매경론』 『열반경중요』 등 곳곳에 나타난다. 그 중에서 『열반중요』가 열반의 의미에 대한 여러 주장들과 이들간의 차이로 생긴 주장들의 다툼을 전체적으로 화쟁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열반문’안의 마지막 절인 ‘화쟁문’에서는 보신(報身) 상주(常住)와 보신(報身) 무상(無常)의 상반된 주장을 상술하고 주장의 시비를 문답하며 ‘모두가 얻는 게 있다’고도 하고 ‘모두가 잃는 게 있다’고도 한다. 각각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는

p. 814상05-06, “所設諸難 皆有道理 有道理故悉無不許 無不許故無所不通” 참조.

38) 『열반중요(涅槃宗要)』, 한불전1, “統衆典之部分歸萬流之一味 開佛意之至公和百家之異諍”

39) 이것은 1914년 9월에 하반부 세 조각과 1968년 9월 상부의 왼쪽 끝이 한 조각 발견되었다. 이만용, 『원효의 사상』, 전망사, 1983, pp. 76-77 참조; 오법안은 노부오 오토이의 『新羅元曉の生涯について』, Vol. 41, No1(교토:오타니가쿠호, 1961), pp. 33-52를 들어 1914년 5월에 발견한 것으로 말한다. 오법안, 『원효의 화쟁사상연구』, 흥법원, 1988, pp. 35-36, p. 59 참조.

40) 이 『고선사서당화상비문(高仙寺誓幢和尚碑文)』에 의하면 원효(617-686) 사후 100여년이 지나 대력연간(766-780) 봄에 일본에 사신 행렬로 갔던 원효의 손자 한림(翰林) 설중업(薛仲業)이 원효를 흠모하고 존경하는 당시 일본의 높은 벼슬아치를 만나 융숭한 대접을 받는다. 이 사건 이후 20여년이 흘러 9세기 초 애장왕(재위 800-809) 재위 때, 각각 김언승의 후원으로 서당화상비가 세워진다. 『고선사서당화상비문』, 김상현, 『원효연구』, 민족사, 2000, pp. 337-341 참조.

41)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은 원효가 “백가의 두트는 실마리를 화합시키고 일대의 지극히 공정한 논을 얻었다”고 찬양하고, 고려 고종(高宗) 때에 조하향천단(朝何向天旦那)의 『해동중수좌관고(海東宗首座官誥)』에 “신라시대에 원효공이 태어나서 백가의 이쟁을 화합하고, 이문을 합하여 함께 돌아갔다”고 하였다. 고려 숙종(肅宗)은 1101년(숙종 6년)에 원효에게 ‘화쟁국사’라는 시호(諡號)를 추증하였고, 비를 세워 공덕을 기념하였다. 『大覺國師文集』 16권, “和百家異諍之端 得一代之至公之論”; 『동문선(東文選)』 27권 p. 38, “曉公誕生羅代 和百家之異諍 合二門之同歸”; 이만용, 같은 책, pp.68-69 참조; 『고려사(高麗史)』 11권, ‘肅宗六年條’ 참조; 김상현, 위 책, p. 209, pp. 301-302 참조.

데, 각각의 주장이 일리가 있기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코끼리를 만진 각각의 여러 장님이 코끼리에 대해 말할 때, 그가 말하고 그려내는 것은 자기가 만지고 경험한 것이다. 그것은 코끼리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만 코끼리를 드러내는데 각각 일리가 있다. “저 눈먼 사람이 자기 코끼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코끼리의 실체는 언지 못하였지만, 그렇다고 코끼리를 설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불성을 말하는 것도 이와 같아서 여섯 가지 법이 딱 맞는 것도 아니며 여섯 가지 법을 벗어난 것도 아니다”⁴²⁾

이처럼 어떤 주장은 그 근거 안에서만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주장만을 고집할 경우 다른 측면에서는 잃는 것이 있다. 서로 다른 주장들이 부분적으로는 다른 설명이지만, 결국 하나를 가리키는 설명임을 알면 주장들이 서로 조화롭게 잘 어울릴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주장들 가운데 어느 한 설명만이 얻는 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효가 쓰는 ‘서로 어긋나거나 방해되지 않는다[不相違 不相妨]’는 논증 구조를 보면, 어긋나거나 방해되지 않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전체와 부분 사이의 방해와 어긋남은 밝지 못함[무명(無明)]으로부터 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이 밝지 못함의 해소로 오해가 풀리면 통하고, 통하면 조화가 저절로 일어난다. 애초에 주장들 간 방해나 어긋남은 필요 없었다. 다만 밝지 못해 오해하고 고집해 어긋나고 방해된다고 여긴 것이다. 그러므로 밝지 못함[무명]을 제거해 어긋남을 없앴지만, 어긋남을 없애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또 방해를 제거했지만, 방해를 제거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일체중생이 밝지 못해[무명] 꿈을 따라 유전하는 것을, 한 맛을 보게 하여 일심이라는 근원으로 되돌아오게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니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⁴³⁾고 하는 것과 같다. 조화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꿈으로 비유되는 치우친 견해에 대한 집착을 끊으면 저절로 일어난다. 서로 어긋나지 않기[不相妨] 때문에 모두 얻을 만한 게 있고[悉得], 꼭 그런 것만은 아니기[非定然] 때문에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不相違].

원효는 늘 부분적으로 보는 것과 한정짓는 것을 경계한다. 광대심심(廣大甚深) 심원무한(深遠無限)한 열반의 경지에서는 어느 하나를 버리지 않고, 어느 하

42) 원효, 『열반종요(涅槃宗要)』, 한불전1, p. 539a07-09. ; 혜엄 역,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 (36), 대정장12, p. 802b29-c02, “如彼盲人 各各說象 雖不得實 非不說象. 說佛性者 亦復如是. 非卽六法 不離六法.”

43) 원효,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한불전1, p. 610a17-b01, “如來所化一切衆生 莫非一心之流轉故 皆說一味者 如來所說一切教法 無不令入一覺味故 欲明一切衆生 本來一覺 但由無明 隨夢流轉 皆從如來一味之說 無不終歸一心之源 歸心源時 皆無所得 故言一味 卽是一乘” 참조

나를 선택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둘 다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보이고 둘 다 버리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 이유는 부처의 여러 가르침이 나오게 되는 부처 뜻은 넓고 크고 아주 깊으며 아주 멀고 끝이 없으므로, 한 쪽 말에 그 뜻을 모두 담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열반종요』의 마지막 문구는 이렇게 맺고 있다. “부처의 뜻은 매우 멀고 끝이 없으니, … 부처의 뜻을 한정지으려 하는 것은 마치 소리로 바닷물을 길으려는 것과 같고, 대롱으로 하늘을 보려는 것과 같을 뿐이다.”⁴⁴⁾ 소리를 합치고 대롱을 합치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 또한 소리와 대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주장이 있고 그에 따른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주장함의 의미 있음과 함께, 그 의미의 한계를 깨어있으며 알 수 있다면 화쟁(和諍)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온전한 화쟁의 가능조건은 인식론적으로 열반이고,⁴⁵⁾ 존재론적으로 일심이다.⁴⁶⁾ 김정탁·이경열은 헤겔이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적 다양성을 긍정하는 것처럼 원효의 화쟁사상은 보편성과 종파적 외양보다는 그 내부의 메시지에서 동일성을 찾은 것이라고 하며, 원효의 화쟁론을 의사소통관으로 이해한다.⁴⁷⁾ 동일성이 바로 일심이다. 원효가 동일성을 찾은 것이라 해서 통일(統一)적인 것을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다양한 주장들을 소통하기 위한 본질적 전제조건이 일심 혹은 열반임을 밝히는 것이다.[不二] 동일한 전제조건 때문에 다양성이 죽고 통일성으로 귀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름의 이치를 가지며 다양한 고유함들이 온전히 살아나는 것이다. 백가의 주장이 사르며[不二] 살아나[不二]다 조화를 이룬다.[不一不二]⁴⁸⁾ 화쟁 글쓰기는 ‘회통(會通) 글쓰기’ ‘화회(和會) 글쓰기’와 불가분리다. 회통과 화회는 소통을 목적으로 하지만, 비판·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그 뜻을 이해하면 그 글들이 서로 통하며[會通], 조화를 이루며 그 뜻을 이해한다[和會].

서양문명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 말과 글 그리고 역사와 문화 배경이 다른 서양의 ‘비판적 글쓰기’를 배우고, ‘설득의 수사학’을 배우고, 따지는 ‘논리

44) 원효, 『열반종요』, 한불전1, p. 547a18-21, “佛意深遠無限, … 限於佛意, 是猶以螺酌海用管闔天者耳.”

45) 김원명, 「원효 『열반경종요』의 열반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참조.

46) 김원명, 「현대 문명 위기 극복을 위한 원효와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 『하이데거 연구』 제 15집, 한국하이데거학회 엮음, 두리터, 2007 참조.

47) 김정탁·이경열, 「원효의 의사소통관-화쟁론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Vol. 20, No. 3, 한국방송학회, 2006 참조.

48) 원효,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 한불전1, p. 680상15-16; 원효, 『대승기신론소기회본(大乘起信論疏記會本)』, 한불전1, p. 742상09, “百家之諍無所不和也” 참조.

적 글쓰기'를 배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다. 우리는 '비판'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따지기'만 하는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설득당하는 걸 기분 나빠한다. 왜 그런가? 우리 삶과 생각의 전통, 우리말과 잘 맞지 않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따지며 비판적으로 글쓰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고 통하는 회통 글쓰기, 설득의 수사학 대신 조화를 이루고 이해하는 화회 글쓰기가 우리에게 맞는다! 더 나아가 오히려 서로 다른 역사 문화 종교의 배경을 가진 문명들이 함께 공존해야 할 다원주의 지구촌 시대에 평화롭게 공존하는 글쓰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최봉영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때, “본디 모든 것이 ‘우리’로 어울려 있다”고 본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과 불, 물, 바람, 풀, 나무, 벌레, 동물 등이 본디부터 ‘우리’로 어울려 있다고 본다. 한국인은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쪽과 저쪽을 다 살라서 하나를 이룸으로써 이쪽과 저쪽이 어울려 있는 본디의 모습을 잘 살려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⁴⁹⁾ 화쟁 글쓰기는 현대의 지구촌 다원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평화로운 이해와 공존의 시대에 적합한 조화·이해·소통의 한국적인 ‘다 살리는’ 인문학적 지구촌 글쓰기다. 여기서 ‘다·살림 글쓰기’는 원효의 ‘화쟁 글쓰기’를 현대적으로 설명하는 미래 글쓰기 대안이다.

‘다·살림 글쓰기’에서 ‘다 살림’은 ‘다’와 ‘살림’을 조합한 말이다. ‘다’는 다 알다시피 ‘다’다. 그리고 ‘살림’의 본디 말을 살펴보면 ‘술이다/술오다’다. ‘술이다/술오다’는 불에 ‘타다’ 또는 ‘녹다’의 뜻인 ‘술다’에서 나온 것이다. ‘술이다/술오다’는 ‘어떤 것들을 불에 태우거나 녹여서 하나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 ‘술다’의 사동형이다. 어떤 것들을 불로 사르면 타거나 녹아서 하나로 어우러지고 본래 것들은 사라진다. 본래 것들이 자취를 감추는 과정이 ‘사라지다’다.⁵⁰⁾ 그러나 하나로 어우러져 사라지지만 하면 살리는 것이 아니다. 초가 타면서 사라지지만 촛불로 살아난다. 촛불이 살아나는 것은 초가 타며 사라지는 수밖에 없다. 초는 사라지면서 살아나는 것이다. 자기에 고집하지 않고 자기 의견에 고집하지 않고 사라지므로써 비로소 각각이 자기에 고집하지 않는 자기로 살아지고 그래서 각각이 자기에 고집하지 않는 자기로 살아나 다 어울리고 다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하이데거식 표현을 빌려 말하면, 사무침이 깊어지면서 존재의 심연에서 비본래적 존재자가 사라지고[不二] 그것을 통해 본래적 존재자인 현존재가 다시 그때마다 거기에서 살아나는 것[不二]과 같다. 이처럼 ‘다·살림 글쓰기’는 각각의 현존

49) 최봉영, 『한국인에게 정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말 글쓰기와 학문』, 우리말로학문하기 모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층 브릭스 센터, 2008년2월29일, pp. 12-13.

50) 최봉영, 같은 논문, pp. 11-12 참조.

제가 그때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존재사건과 같은 글쓰기로 이해하고 다 살리는 것이다. 다 살리는 ‘다-살림 글쓰기’의 전제는 바로 존재의 심연을 맛보는 ‘존재에 사무침’이다.

4. 나가는 말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는 물음을 묻거나 그 물음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지거나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는 일에 엄두를 낼 수 없도록 몰아세우는 시대다. 우리 시대는 바로 사람 삶의 의미 묻기와 관련된 일련의 학문들인 인문학의 위기 시대다. 이 시대의 인문학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의 현실 삶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반성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느끼고 생각하는 데서 저절로 우리나라오는, 우리에게 사무친 우리말을 쓰고 우리글을 쓰는 것이다.

고려 말 이규보는 뜻을 드러내고 뜻을 새롭게 하는 글을 쓰라고 즉 주의론(主意論) 신의론(新意論)을 주장하고, 조선 말 홍석주도 뜻을 전달하는 글을 쓰라고 즉 달의론(達意論)을 주장하는 글쓰기 반성의 전통이 있었다. 한문 몰입교육 시기의 과거시험 문체 글쓰기나 모방적 글쓰기 또 실용성 현실성이 없는 무실(無實)한 글쓰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모 대학에서도 영어강의 30% 넘기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한국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철학마저도 영어로 강의하라는 추세다. 우리 선조들의 반성은 이 시대에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학문은 수입학문으로 채워지고 우리 현실과 전통으로부터 길어져 나온 말과 이론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다. 그러나 지구촌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학문이 세계 학문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소통하며 서로서로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저들로부터 배우고 저들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소통하기 위해 우리를 망각하고 저들과 하나가 되어 도대체 가르쳐 줄 무엇이 있거나 할까?

서양뿐만 아니라 여러 문명권의 인문학을 수입해서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것들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그것을 수입해 소개받으며 우리 자신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자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그들의 것이 우리를 뒤덮고 우리 자체가 망각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일 수가 없다. 논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단히 우리가 되자는

게 아니다. 우리 자체가 망각되면 닫힌 우리건 열린 우리건 따질 우리조차 없다. 수입 학문이론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채 쏟아내는 글, 수입 소개 수준에만 그치거나 주석이나 하는 글, 자신의 권위를 외국학자 이론에만 빌붙어 살리는 글은 모두 더 숙고하고 익히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살려내야 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문제의식으로 새롭게 익지 않고 주체적으로 숙고되지 않은 수입된 글과 이론들 문제를 자각하지 못한 채 그것을 학문의 전형으로 여기는 한, 인문학 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인문학 위기가 ‘식민성과 공모한 삶’, ‘삶의 소외’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진단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알아내 알고 있는 사무친 것으로부터 나온 자생적 이론 창출이라는 처방을 요구한다. 서구 근대의 합리성 추구 학문의 한 모델인 논문 글쓰기 방법은 서구적 근대를 대표하는 좋은 하나의 글쓰기 유형이지만, 역사와 문화와 말이 다른 학문적 전통 속에서 길어져 나온 세계 여러 문명권 학자들에게는 오히려 익혀 숙고할 대상이며 극복할 대상이다. 인문학위기를 극복하는 처방은 결국 다양한 글쓰기, 다양한 글쓰기는 또 서로 소통되고 이해되고 어울리며 사람을 더욱 자유롭고 풍요롭게 한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편지 속에서, 기도문 속에서, 시 속에서, 이야기 등을 통해서도 그들의 철학함을 보여주었다. 다양한 글쓰기를 통해 생각의 자유를 주고 각자 그들에게 사무친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사무치도록 글을 쓰는 가운데, 그들의 삶으로부터 길어져 나온 자생적인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 자생이론이 나오도록 해주어야 한다.

화쟁 글쓰기는 전통적 글쓰기의 한 원형이다. 화쟁 글쓰기는 현재와 미래의 다원주의 시대에 다양한 글쓰기 요구 및 필요에 대한 우리 전통에서의 한 응답이다. 화(和)의 정신을 베다에서 찾을 수도 있으며, 불교 내적으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원효 시대의 정치적 상황이나 종교적 상황, 그리고 신라 전통사회의 상황 모두 화쟁을 창안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논자는 신라의 화백회의의 ‘신성성’과 ‘만장일치제’ 등을 주목하며 고조선 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전통이 내재적이며 주체적인 계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쟁은 ‘불교의 모든 범문들이 다 이치가 있으며, 다 이치가 있으므로 모두 허락되지 않음이 없고, 허락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지혜다. 혜갈이 절대정신의 자기 전개적 다양성을 긍정하는 것처럼, 원효의 화쟁사상은 보편성과 종파적 외양보다는 그 내부의 메시지에서 동일성을 찾아 여러 종파가 더불어 어울리라고 한다.

화쟁 글쓰기는 ‘회통(會通) 글쓰기’ ‘화회(和會) 글쓰기’와 불가분리다. 회통과

화회는 비판하거나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뜻을 이해하면 그 글들이 서로 통하며[會通], 조화를 이루며 그 뜻을 이해한다[和會]. 우리는 말과 글 그리고 역사와 문화 배경이 다른 서구의 ‘비판적 글쓰기’를 배우고, ‘설득의 수사학’을 배우고, 따지고 드는 ‘논리적 글쓰기’를 배우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판’만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따지기’만 하는 논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설득당하는 걸 기분 나빠한다. 왜 그런가?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것이 우리 삶의 전통, 우리 생각의 전통, 우리말과 잘 맞는가? ‘논리적’으로 따지며 ‘비판적으로 글쓰는’ 대신 상대를 이해하고 통하는 원효의 ‘회통 글쓰기’를, ‘설득의 수사학’ 대신 조화를 이루고 이해하는 원효의 ‘화회 글쓰기’가 우리에게 잘 맞는다!

우리는 세계를 바라볼 때,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사람과 불, 물, 바람, 풀, 나무, 벌레, 동물 등이 본디부터 ‘우리’로 어울려 있다고 본다.” 우리는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쪽과 저쪽을 다 살라서 하나를 이룸으로써 이쪽과 저쪽이 어울려 있는 본디의 모습을 잘 살려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화쟁 글쓰기야말로 현대의 다원주의 지구촌 사회에서 필요한 평화로운 이해와 공존의 시대에 적합한 조화와 이해와 소통의 한국적인 ‘다 살리는’ 인문학적 지구촌 글쓰기다. 여기서 ‘다 살림 글쓰기’는 원효의 ‘화쟁적 글쓰기’를 현대적으로 설명하는 미래 글쓰기 대안을 제시하는 오래된 새로운 용어다.

참고문헌

- 원효 저, 은정희 역주, 『이장의』, 소명출판, 2004.
- 은정희 역주,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별기』, 일지사, 2002 10쇄.
- 은정희 역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 일지사, 2000.
- 『열반중요(涅槃宗要)』, 한불전1.
- 구연상, 「글쓰기의 목적과 사무침」, 『우리말 글쓰기와 학문』, 우리말로학문학기모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층 브릭스 센터, 2008년2월29일.
- 김상현, 『원효연구』, 민족사, 2000.
- 김영민, 『탈식민성과 우리 인문학의 글쓰기』, 민음사, 1997.
- 김영진, 『철학적 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임상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4.
- 김영호, 「원효 화쟁 사상의 독특성-화쟁(인도) 및 무쟁(중국)과의 대조-」, 『철학』, 한국철학회, 2000.
- 김용환, 「임상철학을 위한 시론」(『한국인을 위한 논리』, 김영진, 철학과 현실사, 2001 서평), 『철학과 현실』 제50권, 2001.
- 김원명, 「원효 『열반경중요』의 열반론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철학과 박사 학위논문, 2006.
- _____, 「현대 문명 위기 극복을 위한 원효와 하이데거의 존재 이해」, 『하이데거 연구』 제15집, 한국하이데거학회 엮음, 두리터, 2007.
- 김정탁·이경열, 「원효의 의사소통관-화쟁론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Vol. 20, No. 3, 한국방송학회, 2006.
- 김진나·박주식, 「인문학의 위기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사유틀’ 모색」, 『비평과 이론』 제4권 1호, 1999.
- 김철범, 「한문고전의 글쓰기 이론과 그 현재적 의미-이조후기 古文論을 대상으로-」, 『작문연구』 창간호 2005.
- 박태원, 「한국 고대불교의 통합사상-원효와 의상을 중심으로-」, 『한국사상사학』 제14집.
- 양혜림, 「인문학의 패러다임과 인문학 위기의 극복책을 위하여-딜타이와 신칸트학과, 베버, 하버마스를 중심으로」, 『해석학연구』, 2001.
- 이왕주, 「호랑이 굴로 들어가기」, 『철학과 현실』 제28권, 1996.
- 이원재, 「제1부 과거시험을 봐야 했던 진짜 이유들」, 『과거공부를 알아야 우리 교육이 보인다』, 문음사, 2005 3쇄.
- 장석주, 「논문이나, 주제적 글쓰기나」, 『사회비평』 제34권, 2002.
- 전성기, 「학문적 글쓰기-임상수사학적 탐구」, 『텍스트언어학』 20, 2006.
- 최봉영, 「한국인에게 정치는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말 글쓰기와 학문』, 우리말로학문학기모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층 브릭스 센터, 2008년2월29일.

최종욱, 『인문학의 위기-인문과학의 위기에 대한 담론분석을 위한 시론』, 『어문학논총』 제18집, 국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99.

최재목, 『크로스오버 인문학-젊은 철학자의 눈의 글쓰기』, 장승, 2003.

_____, 『인문학, 편집술, 事的 글쓰기 혹은 緣起的 글쓰기』, 『인문연구』 제45·46집,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04.

『대감곳이 보여주는 호혜경제시대의 분배의 원칙』 DAUM 블로거뉴스 2006.01.11. 자

『귀거리만신의 곳은 역시 대인의 곳』 DAUM 블로거뉴스 2006.01.31. 자

[Abstract]

An Essay on Wonhyo's Hwajaeng Writing

Kim, Won-Myoung(Hankuk Univ. of Foreign Studies)

This essay makes an introduction of a few classical criticisms & theories about Chinese writing in Goryeo dynasty Joseon dynasty. Classical criticisms & theories about Chinese writing are a theory of Juei(주의론) of Kyubo Yi(이규보) in Goryeo dynasty, a theory of Daleui(달의론) of Seokju Hong(홍석주) in Joseon dynasty. And what will follow is that this essay makes an introduction of many criticisms & theories about Korean writing today. Criticisms & theories about Korean writing today are a swamp writing(늪의 글쓰기), an editing writing(편집술 글쓰기), a writing of touching the heart & sinking into the mind(사 무침 글쓰기) etc..

The comparison between criticism theories about writing of two times, Chinese writing time and Korean writing time, gives us lessons which teach us the good writing method and spirit that writes sincerely and really a writing sprung up from sincere & real experiences of one's life.

This essay makes a new and old proposal which is a Wonhyo's Hwajaeng writing(화쟁 글쓰기) that do away with contradict opinions and lead a higher wider deeper opinion. In Hwajaeng writing, all writers can be approved a good writer in some sense. All writers can be jumped up highly widely deeply because they are all there-being sprung up from there at that time every moment. This essay makes a new proposal as my interpretation which is a Dasalim writing(다 살림 글쓰기).

Key Words : a crisis of humane studies, a theory of Juei, a theory of Daleui, Hwajaeng writing, Dasalim writing

투 고 일 : 2008년 3월 8일

심 사 일 : 2008년 3월 27일

계재결정일 : 2008년 4월 11일